

“성장의 결과”…페퍼스, 두 시즌 연속 두자릿 수 승리 달성



현대건설에 3-0 승…시즌 10승
조이·박은서·시마무라 등 활약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현대건설을 상대로 완승을 거두며 10승을 달성했다. 두 시즌 연속 두 자릿수 승수를 이룬 장소연 감독과 선수들은 결과보다 ‘과정과 성장’을 강조했다.

페퍼스는 지난 4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진에어 2025-2026 V-리그 여자부 5라운드 현대건설과의 홈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0(30-28 28-26 25-21) 승리를 거뒀다.

듀스 점전이 이어진 두 세트를 모두 잡아낸 집중력이 승부를 갈랐다.

페퍼스는 이번 시즌 현대건설과의 맞대결에서 5전 4승을 기록하며 강세를 이어갔고, 시즌 10승 고지도 밟았다.

경기 후 장소연 감독은 “선수들이 기세에 밀리지 않고 자신 있게 경기에 들어갔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 분명 고비는 있었지만, 선수들이 그걸 스스로 잘 이겨냈다”고 덧붙였다.

장 감독은 안정감을 찾은 블로킹과 미들진의 판단력을 짚었다. 이날 홀로 30득점(블로킹 4개)을 기록한 조이에 대해 “블로킹을 읽는 눈이 굉장히 좋다. 상황 판단이 빠르고, 많은 주문을 하지 않아도 상황을 보고 스스로 이동한다”며 “상대 공격 패턴이 다양할수록 미들의 역할이 커지는데, 그걸 잘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감독이 시즌 초 내세운 목표는 매 라운드 ‘5할 승률’이었다. 시즌 두 자릿수 승리에 대해서는 그는 여전히 결과보다 목표의 ‘지속성’을 강조했다.

장 감독은 “처음 세운 목표를 계속 이어가고 있

다”며 “중간에 긴 연패도 있었지만 선수들과 목표를 공유하며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해왔다. 후반부에는 우리가 집중해야 할 포인트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레프트 운영과 관련해서는 기록에 드러나지 않는 ‘원조 캡틴’ 박정아의 역할을 분명히 언급했다.

이날 박정아는 3세트 들어 첫 득점이 나왔지만, 수치로는 다 담기지 않는 존재감이 있었다.

장 감독은 “현재 레프트를 박은서, 박정아, 이한비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정아를 계속 스타팅으로 쓰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다. 기록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고, (정아가 출전하면) 상대도 그에 맞춰 오더를 바꾼다”며 “부담 속에서도 팀을 위해 뒤에서 해야 할 역할을 집중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조이에 이어 박은서와 시마무라는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며 승리에 기여했다.

박은서는 이번 시즌을 ‘버티는 힘이 늘어난 시간’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예전에는 한 부분이 풀리지 않으면 경기 전체가 무너지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잘 되는 하나를 붙잡아 나머지를 잘 되게끔 흐름을 끌어올리려 한다”며 달라진 팀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현대건설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번 시즌에 대해 “현대건설전에 맞춰 준비한 플레이들이 잘 맞아떨어졌다”고 말했다.

시마무라는 “특정 상대라서 자신 있다기보다는 눈앞의 경기 하나에 집중하려고 한다”며 “개인 이 아니라 팀 전체가 점수를 내고 있다는 점이 최근



지난 4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진에어 2025-2026 V-리그 여자부 5라운드 현대건설과의 홈 경기에서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 선수들이 득점 이후 환호하고 있다. 이날 페퍼스는 현대건설을 세트스코어 3-0(30-28, 28-26, 25-21)으로 승리했다. <KOVO 제공>

좋은 흐름의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팀 승리를 돕기 위해 한국에 왔다. 동료들과 신뢰가 쌓이면서 경기력도 자연스럽게 좋아지고 있다. 외국인 선수로서 환경은 다르지만, 팀이

이기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지만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홈에서 시즌 10승을 달성한 페퍼스는 오는 8일 오후 4시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선두 도로공사를

상대로 연승에 도전한다.

승리할 경우 창단 이후 최대 승리였던 지난 시즌 11승과 타이틀을 이루게 된다.

/박연수 기자 training@kwangju.co.kr

세계 겨울 스포츠 축제…20년만에 이탈리아서 막 오른다



밀라노·코르티나 개최…17일간 열전

20년 만에 이탈리아로 돌아온 세계 최대 겨울 스포츠 축제가 화려한 막을 올린다.

제25회 동계 올림픽인 2026 밀라노·코르티나남페초 대회가 한국시간 7일 오전 4시(현지시간 6일 오후 8시) 이탈리아 밀라노의 산시로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개회식으로 17일간 열전의 시작을 알린다.

이탈리아는 20년 만이자 동-하계를 합해 4번째로 올림픽을 개최한다.

1956년 코르티나남페초, 2006년 토리노 동계 올림픽을 열었고, 하계 대회는 1960년 로마 올림픽을 개최한 바 있다.

이번 대회는 ‘지속 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신규 시설 건설을 최소화하기로 하면서 경기가 이탈리아 곳곳에 분산돼 열리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이탈리아의 ‘경제 수도’이자 패션 산업의 중심지인 밀라노에서 빙상과 아이스하키 경기가 열려 메인 무대 역할을 하며, 알파인스키, 바이애슬론, 컬링, 썰매가 개최되는 코르티나남페초가 대회 명

칭에 함께 이름을 올렸다.

단일 올림픽 공식 명칭에 두 개의 지명이 들어간 것은 이번 대회가 처음이다.

밀라노와 코르티나남페초는 무려 400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그 사이의 발텔리나 클러스터, 발 디피엠페 클러스터에서 스키, 스노보드 종목이 나눠 개최된다.

여타 대회처럼 개최 열기가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돌아오기는 어렵지만, 조직위원회는 “따로 또 같이” 느낌의 개회식으로 모두가 연결되는 대회의 분위기를 끌어올린 참이다.

20년 전 토리노 동계 올림픽을 비롯해 다수의 굵직한 국제 스포츠 대회 행사에 참여했던 이탈리아 출신 마르코 발리치가 총연출을 맡은 개회식은 이탈리아어로 ‘조화’를 뜻하는 ‘아르모니아’(Armonia)를 주제로 펼쳐진다.

출연진만 1200여명에 달하며, ‘팝의 여왕’ 머라이어 캐리, 이탈리아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성악가 안드레아 보첼리, 중국의 피아니스트 랑랑 등 유명 아티스트들이 공연에 나선다.

1926년 문을 열어 올해로 100주년을 맞이하는 이탈리아의 축구 성지 산시로 스타디움은 머지않아 철거 예정이라 이번 개회식은 이 곳에서 열리는 사실상 마지막 대형 이벤트가 돼 의미를 더한다.

현재 산시로를 홈구장으로 사용 중인 이탈리아 프로축구 AC밀란과 인터밀란은 인근에 새 구장을 지을 계획이다.

밀라노 외에 코르티나남페초와 프레다초, 리비노에서 동시에 행사와 선수 패레이드가 열릴 예정이며, 성화대도 밀라노와 코르티나남페초에 모두 설치돼 ‘화합의 불꽃’이 동시에 타오른다.

이번 올림픽엔 92개 국가올림픽위원회(NOC)의 선수 약 2900명이 참가해 신설된 산악스키를 포함한 8개 종목, 16개 세부 종목에 총 116개의 금메달을 놓고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

선수 71명을 포함해 130명의 선수단을 파견한 대한민국은 금메달 3개 이상을 획득해 종합 순위 10위 이내에 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8일 리비노 스노 파크에서 열리는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이 우리나라의 첫 메달 기대 종목으로 꼽히며, 동계 올림픽 전통의 ‘메달밭’ 쇼트트랙은 10일 시작된다. /연합뉴스



대한체육회 체육상 대상 수상자인 김원호(왼쪽).

‘배드민턴’ 김원호, 대한체육회 체육상 대상

제72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최고의 영예인 대상 수상자로 배드민턴 ‘황금 콤비’ 중 한 명인 김원호(삼성생명)가 뽑혔다.

대한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와 지난 2일 제12차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경기·지도·심판·생활체육·학교체육·공로·연구·스포츠 가치 총 8개 부문에서 93명과 5개 단체를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상 영예를 안은 김원호는 같은 팀의 서승재와 호흡을 맞춰 2025 파리 세계배드민턴선수권 남자 복식 우승과 월드투어 단일 시즌 11관왕에 오르며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시상식은 다음 달 13일 오후 2시 태릉선수촌 챔피언하우스에서 열리며, 수상자에게는 표창패와 특별 부상이 수여된다.

부문별 최우수상은 ▲경기 부문 사이클 최태호(강원도사이클연맹), 사격 반효진(대구체고) ▲

지도 부문 역도 이세원 고양시청 감독, 유도 부문 정성숙 용인대 감독 ▲심판 부문 유도 김은희 대한 유도회 상임심판 ▲생활체육 부문 차두연(부산광역시물러스포츠연맹) ▲학교체육 부문 오종환 온천초등학교 교사가 각각 선정됐다.

또 ▲공로 부문 이충환 대한세파타크로협회 부회장, 김광태 대전근대5종연맹 부회장 ▲연구 부문 김석규 동국대 스포츠과학전공 부교수 ▲스포츠 가치 부문 박강규 서울컬링연맹 회장 등도 영예를 안았다.

이밖에 우수상과 장려상 부문별 수상자(우수상 21명 및 3단체, 장려상 60명 및 2단체)에게도 표창패와 부상이 수여된다.

체육회는 1955년 체육상을 제정한 이래 매년 각종 스포츠 활동에서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였거나 창의적·헌신적 노력으로 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 상을 수여해 왔다. /연합뉴스

‘절대 1강’ 신진서, 74개월 연속 바둑랭킹 1위

김은지 3개월 연속 여자 1위

김은지 9단이 여자 바둑랭킹 1위를 3개월 연속 지켰다.

한국기원이 5일 발표한 2월 랭킹을 보면, 1월에 6승 3패를 거둔 김은지 9단은 15점을 보태 9586

점을 기록하고 여자 랭킹 1위를 수성했다.

또 남녀 전체 랭킹을 18위로 4계단 끌어올려 자신의 최고 순위를 또 경신했다.

최정 9단은 지난달 5전 전승을 기록하며 5계단 상승한 전체 28위(9507점)이자 여자 랭킹 2위로 김은지 9단을 바짝 추격했다.

신진서 9단은 1월에 3승 1패를 기록해 1만388점으로 74개월 연속 전체 랭킹 1위를 질주했다.

박정환 9단이 2위를 유지한 가운데 제30회 LG배에서 우승을 차지한 신민준 9단이 한 계단 상승한 3위, 변상일 9단이 한 계단 하락한 4위에 자리했다. 2025-2026 KB국민은행 바둑리그에서 9연승을 내달린 강유택 9단은 2017년 이후 9년 만에 20위권에 다시 이름을 올리며 17위에 랭크됐다. /연합뉴스

즐거운

문화산책

광주예술의전당 전시지원 공모전시
미술완보 : 민은주 개인전

일시 : 2026-01-23(금)~2026-02-22(일)
공연 있는날 10:30 ~ 19:30
공연 없는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2026 그랜드 오케스트라 워크

2026 그랜드 오케스트라 워크

2026. 2. 3.-6. 19:30

광주예술의전당 개관 35주년 기념
2026 그랜드 오케스트라 워크

일시 : 2026-02-03(화)~2026-02-06(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36